

대학수학능력시험의 문법 영역 문항 분석을  
통한 출제 경향 진단  
—2005학년도~2013학년도를 대상으로—

신호철 경기대학교 교육대학원



- I. 서론
- II. 대학수학능력시험의 문법 문항 선정
- III. 문법 문항 분석
- IV. 결론 및 제언

## I. 서론

우리나라 대학 입학시험은 1945년 대학별 단독 시험을 시작으로 1969년 대학입학예비고사를 통해 1982년 대학입학학력고사를 거쳐 1994년 대학수학능력시험으로 이어져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올해는 현행 대학 입학시험 제도인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이라 함)’이 시행된 지 정확히 20년째가 되는 해이다. 수능 시험 제도는 20년 동안 여러 회의 손질과 제도적 개편 작업을 거쳤고 현재도 손질이 진행 중에 있다.

본고는 2005학년도부터 2013학년도 수능에 출제된 문법 문항에 대한 분석 작업을 바탕으로 문법 문항의 출제 경향을 점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수능의 언어 영역 문항 중에서 문법 관련 문항을 표집하고 이를 대상으로 단독형과 복합형<sup>1</sup>으로 구분하여 문항을 분석하고자 한다. 수

---

1 본고에서는 수능 문항을 단독형과 복합형으로 구분하는데, 이는 문항 내용의 영역을 기준으로 한 구분이다. 뒤에 문항 제작 원리에 따라 ‘단일형, 통합형’이 등장하는데, 이는 활동의 성격에 따른 것이다.

능 언어 영역의 문항 중 본고의 연구 대상은 2005학년도부터 2013학년도까지 출제된 문법 관련 문항 80개이다. 수능에서 어휘·어법 문항이 단독으로 출제되기 시작한 것이 2005학년도이다. 2005학년도 이전 수능에서는 어휘·어법 단독형 문항이 없었고 다른 영역(쓰기, 읽기)에 흡수되어 출제되었다. 그래서 문법 문항에 대한 본질적인 분석이 쉽지 않았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단독형 어휘·어법 문항이 출제된 2005학년도 수능부터 2013학년도 수능 까지를 연구 대상 범위로 정한다.

대학 입학시험 제도에 관한 연구는 주로 대학 입학시험 제도의 체제 변화나 변천 과정, 개선 방안, 외국의 대학 입학시험 제도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룬다. 여기에는 김신영(2009), 양길석(2010), 조용기(2013) 등의 개인 연구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다양한 연구 보고서 등이 있다.

그러나 수능의 어휘·어법 관련 연구는 그리 많지 않은데, 심지연(2005), 신명선(2007), 구본관·조용기(2013) 등의 연구가 있다.<sup>2</sup> 심지연(2005)은 1994학년도 1차부터 2005학년도 수능에 출제된 어휘 문항 중 총 83문항을 대상으로 의미와 관련된 문항을 분석하고 이를 14개의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이는 수능에서 어휘 관련 문항의 상당수가 의미와 관련된 문항이라는 점에서 수능 대비 의미 교육의 내용과 방향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둘 수 있다. 신명선(2007)에서는 세 가지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2005학년도부터 2007학년도까지 수능과 모의 수능 언어 영역의 어휘·어법 문항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구본관·조용기(2013)는 1994학년도부터 2013학년도 수능 문법 영역의 성격, 형식적, 내용적 측면에서 그 특성을 살피고, 2014학년도 수능 '국어 영역'의 문법 영역 출제 개선 방향과 발전 방향에 대하여 제언을 하였다. 이

---

2 이 외에도 학위 논문으로 박상규(2002), 심지연(2003), 이재근(2005), 맹인숙(2008), 국신애(2009) 등이 있다. 이들 대부분은 특정 연도의 수능에 기출된 어휘·어법 관련 문항 분석에 머무르고 있다.

는 2014학년도 개편 · 시행되는 수능 시험이 범교과적 사고력을 측정하는 시험에서 교육과정에 근거하는 시험이라는 점에서 학교 현장의 문법 교육과 수능의 문법 영역 평가 간의 연계를 위한 제언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고는 최근 9년간 시행된 수능의 어휘 · 어법 문항을 대상으로 그에 대한 내용적 측면과 형식적 측면의 분석을 통하여 수능 문법 문항의 기출 경향성과 출제 범위에 대한 점검을 통하여 새롭게 전환되는 수능 ‘국어 영역’의 어휘 · 어법 문항에 대한 출제 방향을 추론 · 제시한다. 논의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먼저 2장에서는 수능에서 문법 관련 문항을 제시되는 기준에 따라 연구 대상 문항을 추출하고, 3장에서는 추출된 80개 문법 문항을 단독형 문항과 복합형 문항으로 구분하여 내용적 측면과 형식적 측면에서 분석하고, 4장에서는 문법 문항 분석 결과를 정리하고, 이 분석 결과를 근거로 수능의 어휘 · 어법 영역의 출제 경향에 대한 반성적 고찰과 제언을 하면서 본고를 마무리한다.

### III. 대학수학능력시험의 문법 문항 선정

1994학년도부터 2004학년도 수능까지 어휘 · 어법 영역은 이원분류표의 행동 영역에 속하여 주로 읽기 영역의 문항 속에 흡수되어 출제되면서 그 정체성을 찾지 못하였다. 이 당시에는 어휘 · 어법 문항은 주로 읽기 영역 문항 속에서 문맥적 의미나 사전적 의미, 사자성어, 어법과 관련된 것이 출제되었다. 이러한 배경은 박도순(1991: 35)에서 기술하고 있듯이 국어 사용 능력을 신장하는 국어과의 교육 목표와 통합교과적 소재를 바탕으로 한 사고력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언어능력시험’의 평가 목표의 근본적인 차이에 기인

한고 할 수 있다.<sup>3</sup> 곧 언어 영역은 언어 능력을 측정하기 위해서 국어 교과뿐 아니라 인문, 사회, 과학, 예술 등 다양한 교과 영역에서 출제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던 것이다(구본관·조용기, 2012: 5).

2005학년도 수능부터 어휘·어법 단독형 문항 2개가 출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정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 이를 문항 역시 문법 관련 내용의 일부에 해당하는 내용만을 평가 목표로 설정하였다. 또한 읽기 영역이나 쓰기 영역의 평가 목표와 일치하는 내용도 많았다. 이러한 내용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2004나: 6-7)에 기술된 내용 영역과 행동 영역의 평가 목표로 확인할 수 있다(밑줄 필자).

#### (1) 수능의 행동 영역(어휘·어법)과 행동 영역(읽기, 쓰기)의 평가 목표

어휘·어법	읽기	쓰기
<p>(가) 어휘의 이해와 사용</p> <p>① 어휘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고 사용하는가.</p> <p>② 어휘간의 관계를 이해하고 제대로 사용하는가.</p> <p>③ 어휘의 짜임과 의미 변화를 이해하고 탐구하는가.</p> <p>(나) 어휘 용법의 이해와 적용</p> <p>① 어휘의 지시적·문맥적 의미를 이해하고 사용하는가.</p> <p>② 어휘의 비유적·관용적 의미를 이해하고 사용하는가.</p> <p>(다) 어법의 이해와 적용</p> <p>① 어법에 맞게 언어를 사용하는가.</p> <p>② 문맥과 문체에 적절한 표현을 사용하는가.</p> <p>③ 언어 규범과 예절에 맞게 언어를 사용하는가.</p> <p>④ 문장과 문단을 바르게 이해하고 언어를 사용하는가.</p>	<p>(가) 단어, 문장, 문단 읽기</p> <p>① 글에 나오는 단어와 문장, 문단의 의미를 파악하는가.</p> <p>② 부분의 내용을 종합하여 통합된 의미를 구성해 내는가.</p> <p>③ 지식이나 경험, 문맥 등을 활용하여 의미를 상세화하는가.</p> <p>(나) 글 전체 읽기</p> <p>① 글의 내용을 이해하고 주제와 의도를 파악하는가.</p> <p>② 글의 전개 방식과 구조적 특성을 파악하는가.</p> <p>③ 글의 표현상 특징을 이해하고 감상하는가.</p> <p>(다) 읽기 과정의 인식</p> <p>① 읽기기에 필요한 사전 활동을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활동하는가.</p> <p>② 글의 내용과 특성을 적합한 방식을 이해하며 읽는가.</p> <p>③ 읽기의 결과를 적절하게 활용, 발전시키는가.</p>	<p>(가) 계획하기</p> <p>① 문제를 발견하여 내용을 생성하는가.</p> <p>② 논지 전개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해석, 평가하는가.</p> <p>③ 적절하게 개요를 구성하는가.</p> <p>(나) 표현하기</p> <p>① 문장과 문단을 바르게 쓰는가.</p> <p>② 내용 전개의 타당성과 효과를 고려하며 글을 쓰는가.</p> <p>③ 여러 형식의 문장 표현을 이해하고 바르게 사용하는가.</p> <p>④ 적절한 문체와 표현 전략을 사용하는가.</p> <p>(다) 조정하기</p> <p>① 글 구조와 내용, 어법 등을 고려하며 글을 고치는가.</p> <p>② 글의 효용성과 가치, 독자를 고려하며 글을 고치는가.</p> <p>③ 쓴 글을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 전달하는가.</p>

3 박도순(1991: 35)에서는 이러한 기술을 통해 국문학 이론, 국문학사, 문법 등에 대한 내용을 언어능력시험에서 다루지 않는다고 하였다.

(1)에서 볼 수 있듯이 어휘·어법 영역의 평가 목표 10개 중에 읽기, 쓰기 영역의 평가 목표와 중복되는 경우가 7개에 달한다. 이는 이전 수능에서 읽기, 쓰기 영역에 흡수되어 출제되었던 경우와 어휘·어법 단독형 문항이 출제되는 경우가 크게 달라지지 않았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본고의 연구 대상 문항을 단독형으로 출제된 2개 문항만 대상으로 한다면, 이들을 분석하여 문법 문항의 본질적인 의미를 찾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읽기 영역이나 쓰기 영역에 흡수되어 출제된 문항까지도 연구 대상을 확대하여 선정한다.

그래서 수능 문법 문항에는 수능에 출제된 어휘·어법 '단독형' 문항뿐 아니라, 타 영역 문항 속에 흡수되어 복합적으로 출제된 문항도 포함한다.<sup>4</sup> 또한 복합형 문항의 관련 내용은 국어과 교육과정 문법 영역의 내용(또는 학교 문법 내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확장한다. 그러나 복합형 문항 중에서 읽기 자료로 언어 자료를 제시하고, 제시 자료의 사실적 이해를 확인하는 문항 속에 문법 관련 내용이 이해 자료로 들어가 있는 경우는 문법 문항이 아닌 읽기 문항으로 간주하여 처리한다.

## (2) 읽기 영역 문항으로 출제된 예(2010 수능 30번 문항)

언어학에서 범별적 자질은 두 대상이 어떤 특성에서 구별된다는 것을 나타내는 유용한 개념이다. 이것은 본래 음운을 범별하는 데 필요한 음성적 특성을 나타내어 음운 간의 대립을 체계적으로 설명하기 위함이었다. 범별적 자질은 [+F]나 [-F]와 같은 형식으로 표시되었다. 예제 'F'는 음성적 특성을, '+/-'는 그 대비한 특성이 있는지를 표시하는 것이다. 음운 /ㅁ과 /ㅂ은 두 입술로(양순성) 공기를 빙어한다(티드리는 공통점이 있으나, 공기가 코를 통과한다는[비유성]) 점에서는 차이를 보이므로 /ㅁ/은 [+양순성, +비유성], /ㅂ/은 [+양순성, -비유성]이라는 범별적 자질들의 묶음으로 표시된다.

범별적 자질을 사용하면 음운 현상에서 함께 행동하면서 하나의 부류를 형성하는 음들을 체계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예를 들어 A가 앞에서 B가 되는 형식 (A → B → C)의 음운 동화 현상에서 ① 규칙을 적용했기 전의 음, ② 규칙을 적용한 후의 음, ③ 규칙의 환경이 되는 음은 각각 하나의 부류를 형성한다. 더 나아가 ④ 규칙을 적용한기 전의 음과 적용한 후의 음, ⑤ 규칙을 적용한 후의 음과 규칙의 환경이 되는 음도 각각 또 다른 하나의 부류를 형성한다. 이때 하나의 부류를 형성하는 음들은 공동의 범별적 자질(들)로 표시할 수 있다.

번별적 자질은 일반적으로 +나 -의 양분적인 값은 가지고, 말소리가 인간의 기억 속에서 범주적인 양상으로 지각되거나 저장되는 사실을 설명해 준다. 또한 이러한 양분적인 값의 사용은 한 개의 자질을 선택함으로써 동시에 두 개의 정보를 알 수 있는 효과, 즉 상호 예측성을 지니므로 정보 전달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범별적 자질을 통해 우리는 음운과 음운 현상을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 3.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 ① 음운 간의 대립은 범별적 자질보다는 음성적 특성에 의해 파악될 수 있다.
- ② 음운 현상에서 함께 행동하는 음들은 공동의 범별적 자질로 표시할 수 있다.
- ③ 하나의 범별적 자질을 알면 해당 음운의 모든 음성적 특성을 알 수 있다.
- ④ 어떤 한 음운은 [+F]이면서 동시에 [-F]인 범별적 자질을 가질 수 있다.
- ⑤ 양분적인 값으로 범별적 자질을 사용하면 정보 전달의 효율이 낮아진다.

4 여기에서 후자는 '복합형' 문항이라 한다. 이는 문법 영역과 읽기나 쓰기 영역이 복합적으로 문항 속에 나타남을 고려해서 칭한 것이다.

이러한 단독형 문항과 복합형 문항의 내용을 바탕으로 (3)과 같이 문법 문항을 추출하였다.<sup>5</sup>

(3) 분석 대상 문항(2005학년도~2013학년도 수능 시험지 훌수형)<sup>6</sup>

학년도	전체 문항수	문법 문항 수			비율(%)			문항 번호
		전체	단독	복합	전체	단독	복합	
2005	60	10	2	8	16.66	3.33	13.33	12, 13, 14, 32, 36, 43, 51, 55, 59, 60
2006	60	11	2	9	18.33	3.33	15.00	12, 13, 14, 23, 30, 33, 38, 41, 46, 47, 60
2007	60	10	2	8	16.66	3.33	13.33	12, 13, 14, 19, 22, 27, 34, 36, 50, 60
2008	50	8	2	6	16.00	4.00	12.00	10, 11, 12, 22, 26, 30, 32, 43
2009	50	9	2	7	18.00	4.00	14.00	9, 11, 12, 15, 19, 22, 27, 46, 50
2010	50	8	2	6	16.00	4.00	12.00	9, 11, 12, 15, 19, 23, 31, 45, 50
2011	50	9	2	7	18.00	4.00	14.00	9, 11, 12, 20, 24, 36, 38, 39, 50
2012	50	7	2	5	14.00	4.00	10.00	11, 12, 19, 24, 28, 42, 50
2013	50	8	2	6	16.00	4.00	12.00	9, 11, 12, 16, 24, 28, 38, 42
계	480	80	18	62	16.66	3.75	12.91	

(3)과 같이 2005학년도부터 2013학년도까지 전체 480개 문항 중에서 문법 문항은 80개 문항이 출제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전체 문항 수의 16.66%에 이르는 수치이다. 80개 문항 수 가운데 단독형 18개 문항, 복합형 62개 문항을 구분하였다. 단독형은 매년 2개 문항씩 출제되었으며, 복합형은 5~9개가 출제되었다.

전체 문항 수가 50개로 줄어드는 2008학년도에도 단독형 문법 문항은 2개로 고정되어 있어 비율상으로 보았을 때에는 이전보다 증가하였으나, 복합형과 합쳤을 경우에는 오히려 감소하였다.

5      따라서 ‘어휘·어법’ 문항으로 칭하지 않고, ‘문법’ 문항으로 그 의미와 범위를 확장하여 칭한다.

6      (3)에서 비율은 전체 문항 수에 대한 각각의 것이고, 문항 번호에서 밑줄 친 진한 번호는 단독형 문항을 가리킨다.

50문항으로 줄어든 이후의 문법 문항에 변화가 보인다. 특히 2012학년도에는 복합형 문법 문항 수가 5개로 가장 적게 출제되었다. 또 단독형 11번 문항 앞에 쓰기 영역 고쳐 쓰기 문항에서 매년 1문제씩 문법과 관련된 문항이 출제되었는데, 2012학년도 수능에서만 이 문항이 빠져 있음을 볼 수 있다.

### III. 문법 문항 분석

우선 문항 분석 전에 한국교육과정평가원(2004가)에서 제시하고 있는 수능 언어 영역의 문항 유형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는 문항 유형에 따라 문항을 세부적으로 분석하기 위함이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2004가: 23~24)에서 문항의 유형은 두 가지 조건에 의해 결정될 수 있는데, 하나는 문항이 보여 주는 형식에 초점을 둔 유형이고, 다른 하나는 문항의 내적 요인에 초점을 둔 유형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여기에서 문항 제작 원리에 따라 문항 유형을 형식적 요인에 따라 분류하였다. 곧 ‘소재의 성격에 따른 유형, 자료 활용 여부에 따른 유형, 조건 제시 여부에 따른 유형, 활동의 통합성 여부에 따른 유형, 사고의 성격에 따른 유형’ 등 5개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소재의 성격에 따른 유형’은 문항 소재의 성격이 수업 상황이나 교과 내용에 초점을 둔 것인지, 그 외의 생활에 초점을 둔 것인지에 따라 하위 분류된다. ‘자료 활용 여부에 따른 유형’은 문항에 지문과 문두와 답지 외에 자료를 추가하였는지, 자료를 활용하지 않고 문두만으로 구성하였는지에 따라 하위 분류된다. ‘조건 제시 여부에 따른 유형’은 문항에 아무런 조건을 제시하지 않은 것과 문두에 조건이 포함되거나 별도의 자료로 제시되었는지에 따라 하위 분류된다. ‘활동의 통합성 여부에 따른 유형’은 문항을 교과, 영역, 제재, 매체의 활동을 통합적으로 구성하였는가, 통합적 활동으로 구성하지

않았는가에 따라 하위 분류된다. ‘사고의 성격에 따른 유형’은 문항이 문제 해결을 위한 사고 과정이 탐구의 절차를 요구하는지, 이러한 절차 없이 이해만 요구하는지에 따라 하위 분류된다. 이것을 정리하면 (4)와 같다.

#### (4) 문항 제작 원리에 따른 문항 유형의 분류

분류 기준	문항 유형	개념적 정의
소재의 성격	생활 중심형	수업 상황에 국한되지 않고, 일상 생활의 구체적인 장면이 적극적으로 문항에 수용된 문항 유형
	교과 중심형	수업 상황이나 교과 내용 중심으로 장면이 구성된 문항 유형
자료 활용 여부	자료 추가형	‘지문+문두+답지+자료’ 구성 자료가 새로운 정보를 추가로 제공하면서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문항 유형
	문두 독립형	자료를 활용하지 않고 문두만으로 사고 과정을 유도하고 있는 일반적인 문항 유형
조건 제시 여부	조건 부과형	‘조건(문두에 포함하거나 별도의 자료로 제시 가능)’이 부가되어 복합적인 사고를 유도하면서, 문제 해결 과정에 적용하는 문항 유형
	조건 부재형	조건을 제시하지 않은 일반적인 문항 유형
활동의 통합성 여부	통합형	교과 통합형 국어, 사회, 과학 등 다양한 교과 내용이 국어를 중심으로 하여 복합적으로 관여된 문항 유형
		영역 통합형 듣기와 쓰기, 읽기와 쓰기 등 국어과 영역이 복합적으로 통합된 문항 유형
		제재 통합형 시와 산문, 문학과 비문학 등 텍스트(제재)가 복합적으로 통합된 문항 유형
		매체 통합형 그림, 사진, 만화 등의 시각 매체, 영화, 텔레비전 드라마 등의 영상 매체 등이 적극적으로 문항에 수용된 문항 유형
	단일형	통합적인 활동을 요구하지 않고, 단일한 활동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항 유형
사고의 성격	탐구형	사회 현상, 언어 현상, 일반 현상 등에 관련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탐구의 절차를 요구하는 문항 유형
	이해형	탐구의 과정이나 절차 없이 이해를 요구하는 문항 유형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04나: 25)

앞의 (3)에서 문법 문항 80개 중 단독형 18개 문항과 복합형 62개 문항을 추출하였는데, 이들을 대상으로 단독형 문항과 복합형 문항으로 구분하고, 이들을 다시 문항의 내적 요소와 외적 요소를 기준으로 적용하여 내용적

측면에서의 분석과 형식적 측면에서의 분석을 통하여 문법 문항에 대한 세부 분석을 실시한다.

## 1. 단독형 문항 분석

문법 영역의 단독형 문항은 총 18개 문항이다. 수능의 전체 문항 수가 60개일 경우(2005~2007)에는 13, 14번 문항에 배치되었고, 전체 문항 수가 50개일 경우(2008~2013)에는 11, 12번 문항에 배치되었다.

### 1) 내용적 분석

수능에서 어휘·어법 영역의 내용적 출제 범위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보고서에 잘 드러나 있다. 곧 어휘의 뜻, 지시적·문맥적·비유적 의미, 기초 한자, 고사성어 등의 어휘 관련 내용 및 어문 규범과 문장 문단 쓰기, 문맥과 문체 표현 등을 그 범위로 정하고 있다(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04가: 10, 2004나: 13, 2012: 7). 이렇게 수능에서 제시된 문법 영역의 내용적 범위에 학교 문법의 내용적 범위를 추가하여 문법 문항에 대한 내용적 분석을 한다. 다음 (5)는 2005~2013학년도 수능 언어 영역에 출제된 단독형 문법 문항을 출제 내용 범위에 따라 도식화한 것이다.

### (5) 문법 영역 단독형 문항의 출제 내용 범위<sup>7</sup>

영역 연도	말소리	단어	어휘	문장	의미	답화	규범	한자
2005			14(의미)	13(구조)				
2006			14(의미)				13(표준어)	
2007		13(명사) 14(접미사)						

7 도표 안의 숫자는 문항 번호이고, 괄호 안은 문법 내용을 적은 것이다. 또 「명사」은 명사를, 「접미사」는 접미사를, 「대명사」는 대명사를 표시한 것이다.

2008			11(의미)			12(맞춤법)	
2009		11(의미)	12(의미)				
2010			11(중의어)	12(청유문)			
2011			11(의미)			12(맞춤법)	
2012		11(합성어) 12(연결어미)					
2013		11(이형태)	12(반의어)				
계	0	6	7	2	0	3	0

(5)에서 가로축의 ‘영역’은 학교 문법의 언어 단위에 ‘한자’를 추가하여 분류한 것이다. ‘한자’는 ‘기초 한자어’와 ‘고사성어’에 해당되는 항목이다.

단독형 문항 18개 중 단어 부분에 6개, 어휘 부분에 7개, 문장 부분에 2개, 어문 규범 부분에 3개가 출제되었다. (5)만 보더라도 단독형 문항에서 문법 영역의 8개 부분 중 4개 부분에서만 출제되었으며, 더욱이 어휘와 단어 부분에 집중되어 출제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단어 부분의 문항은 조사 ‘에’와 결합 가능한 명사(07-13번), 접미사 ‘-되다’의 특성(07-14번), 인칭 대명사의 특성(09-11번), 합성어의 결합 특성(12-11번), 연결 어미의 특성(12-12번), 조사와 어미의 이형태 관계(13-11번) 등 6개 문항이 다양한 범위에서 출제되었다. 그러나 어휘 부분의 문항은 중의어(10-11번)와 반의어(13-12번) 찾기 문항을 제외하면 개별 어휘의 의미를 묻는 문항으로만 출제되었다. 물론 개별 어휘의 의미 이해를 묻는 문항이 아니라 어휘 의미를 통해 유의적 어휘를 추론하거나 분석하는 문항으로 출제되었다.

그러나 개별 어휘의 의미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어휘 의미 문항이 문법 영역 단독형 문항에 지배적이라는 현상은 문제점이 될 수 있다. 곧 어휘의 의미와 관련된 문항은 복합형 문항 속에서 충분히 출제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문법 영역의 단독형 문항에서조차도 이러한 문항이 지배적이라면 학교 현장에서의 문법 교육이 어휘 교육 중심의 문법 교육으로 변할 수 있음을 주

지해야 한다. 문법 단독형 문항 출제의 내용적 다변화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 2) 형식적 분석

문법 문항의 형식적 분석에서는 문항의 내재적 측면과 외재적 측면을 적용하여 분석을 시도한다. 수능이 선택형 문항이라는 것을 전제하면, 문항의 ‘형식적 분석’이라 함은 문두가 부정형 문항인가, <보기>나 <조건> 제시형 문항인가 등의 외형적인 기준으로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문항의 내재적 측면 곧 제시 자료의 소재 성격, 질문에 대한 사고 과정의 유형 등 문항의 내재적 요소까지도 고려한다. 그래서 앞의 (4)에 제시된 ‘문항 제작 원리에 따른 문항 유형의 분류’를 기준으로 문법 문항의 형식적 분석 작업을 진행하였다.

먼저 2005학년도부터 2013학년도까지 수능에 출제된 문법 영역 단독형 문항 18개를 분석하여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 (6) 문법 영역 단독형 문항의 형식적 분석

분류 기준	문항 유형	문항 번호												계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3	14	13	14	11	12	11	12	11	12	11	12	11	12	
① 소재의 성격	생활 중심형											●					1	
	교과 중심형	●	●	●	●	●	●	●	●	●	●	●	●	●	●	●	17	
② 자료 활용 여부	자료 추가형	●		●	●	●	●	●	●	●	●	●	●	●	●	●	17	
	문두 독립형		●														1	
③ 조건 제시 여부	조건 부과형	●		●	●	●	●	●	●	●	●	●	●	●	●	●	17	
	조건 부재형		●														1	

④ 활동의 통합성 여부	통 합 형	교과 통합형																		0
		영역 통합형																		0
		제재 통합형																		0
		매체 통합형																		0
		단일형	●	●	●	●	●	●	●	●	●	●	●	●	●	●	●	●	●	18
⑤ 사고의 성격	탐구형			●		●		●	●	●					●		●		●	7
	이해형	●	●		●	●		●				●	●	●		●		●	●	●

(6)에서 ‘문항 번호’ 아래에는 수능 연도와 단독형 문항 번호를 구분하여 제시하고, 도표 내부에는 단독형 개개의 문항이 ‘분류 기준’ ①~⑤에 해당되는가를 ‘●’으로 표시하였다.

(6)에서 단독형 문항은 ‘⑤사고의 성격’을 제외하고 나머지 유형에서는 집중적으로 편중된 출제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내용적 분석과도 동일한 현상을 보이는 것이다. ‘탐구형’이 7개, ‘이해형’이 11개로 이해형 문항이 우세하지만, 여기에서 문법 문항을 탐구의 과정을 적용하려는 노력을 엿볼 수 있다.

‘①소재의 성격’에서는 1개 문항(10-12번)을 제외하고는 17개가 ‘교과 중심형’의 문항이다. ‘생활 중심형’ 문항은 수업 상황뿐 아니라 일상생활의 구체적인 장면이 적극적으로 수용된 것으로 주로 듣기나 쓰기 영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는데(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04나: 23), 2010학년도 12번 문항만이 그나마 일상생활 속의 언어 장면을 적용하고 있다.

## (7) 2010학년도 수능 12번 문항

12. <보기>를 참고할 때, 밀줄 친 말이 ①에 가장 가까운 것은?

<보기>

청유문은 화자가 청자에게 같이 행동할 것을 요청하는 문장이다. 즉, 청유문은 청유형 어미 ‘-자’, ‘-(으)니시다’ 등이 붙은 서술어의 행동을 화자와 청자가 공동으로 하도록 유발하는 것이다. 그러나 간혹 청자만 행하기를 바라거나 ① 화자만 행하려는 행동을 나타낸 때에도 쓰인다.

- ① (반장이 떠드는 친구들에게) 조용히 좀 하자.
- ② (엄마가 아이에게 약을 먹일 때) 자, 이리 와서 약 먹자.
- ③ (다툰 친구에게 화해를 청하면서) 오늘 영화나 같이 보려 가자.
- ④ (식사를 먼저 마친 사람들이 귀찮게 말을 걸 때) 땀 좀 먹읍시다.
- ⑤ (학급 회의에서 논의가 길어질 때) 이 문제는 나중에 다시 토의합시다.

(7)에 제시된 12번 문항은 ‘<보기>’로 제시된 예가 ‘교과 중심형’ 소재라면, 답지의 내용은 지극히 일상생활 속에서 소통되는 소재임을 알 수 있다. 또한 팔호 속에 문맥적인 상황까지 설명해 주면서 일상생활의 언어 장면임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이 단독형 문법 문항도 일상생활 속의 국어 자료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문제 출제가 가능하다. 또 이러한 단독형 문법 문항 유형이 ‘생활 중심형’ 문항으로 출제되는 것이 실제 언어생활에서 필요한 언어 능력을 측정하는 데에 목표를 두는 수능 ‘어휘·어법’ 영역의 평가 목표와도 일치하는 바이다.

단독형 문항은 대체로 ‘지문, 문두, 답지, 자료’ 등의 자료가 제시되어 출제되고 있는 ‘자료 추가형’ 문항임을 알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문두에 조건을 제시하거나 별도의 자료로 조건을 제시하는 ‘조건 부과형’ 문항임도 알 수 있다. 다만 2005학년도 14번 문항만이 ‘문두 독립형, 조건 부재형’으로 분류되었는데, 이 문항은 문두와 답지로만 구성되어 있는 일반적인 문항이다.

## (8) 2005학년도 수능 14번 문항

14. 혼동하기 쉬운 단어를 구별하여 사용한 예로 잘못된 것은?

[1점]

- ①  기다리고 있으면 내가 글방 갈게.  
    ↳ 요즘에는 방글 전에 읽은 것도 자꾸 잊어버려.
- ②  매몰됐던 광부를 열흘 만에 구조했다.  
    ↳ 인류를 고통에서 구원하는 것이 종교의 역할이야.
- ③  그는 갑작스러운 사태에 당황하고 겁이 나 부들부들 떨었다.  
    ↳ 그의 이야기는 허황되고 황당한 것이었다.
- ④  눈을 빛난 자극을 전기 신호로 변환하여 뇌로 전달한다.  
    ↳ 지난 50년간 변천해 온 여성의 생활상을 보여 주는 사진 전이 열린다.
- ⑤  우리 선조들은 남녀 간에 식별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 달빛이 밝아서 멀리 있는 사람도 흐릿하게나마 분별이 가능했다.

(8)의 14번 문항을 제외하면 단독형 문법 문항은 모두 자료를 제시하면서 문두나 자료 속에 조건을 제시하고 있는 문항이라고 할 수 있다.

‘④활동의 통합성 여부’에 따른 문항 유형에서 단독형 문법 문항은 모두가 통합형이 아닌 단일형 문항으로 분석되었다. 문항 분류에서 ‘교과, 영역, 제재, 매체’ 이 네 가지만을 대상으로 통합형을 분류하고 있어, 이 분류 기준에 해당되는 단독형 문법 문항은 없다. 다만 몇몇 문항에서 문학 자료와 같은 읽기 자료를 제시하여 문항을 출제하고 있어 ‘자료’의 통합을 보이고 있다.

## (9) 2009학년도 수능 11번 문항

11. <보기>의 예를 통해, 문맥 속에서 인칭 대명사의 특성을 파악하는 활동을 해 보았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보기>

① 내가 부탁 하나 할게요. ② 나는 ③ 그쪽에서 ④ 우리  
아버지의 책을 말아 주었으면 해요. 이전 ⑤ 아버지의 뜻이  
기도 하답니다. 아버지께서는 ⑥ 당신의 책을 목숨처럼 소  
중하게 생각하시지요. ⑦ 당신에게 그 책을 맡기시리는 것  
을 보니 당신을 무척 믿으시는 것 같아요.

- ① ⑦과 ⑤을 비교해 보니 ⑦은 ‘나의’를 줄인 말이겠군.
- ② ④과 ⑥은 가리키는 대상이 같아.
- ③ ④은 ⑦과 ⑧을 아울러 가리키는 말이야.
- ④ 앞 문장에 나온 말을 반복하는 건 어색하니까 ⑦은 적절한  
대명사로 바꿔야 해.
- ⑤ ⑨은 놀림법에 맞지 않으니 ‘자기’로 바꿔야 해.

단독형 문법 문항은 (9)와 같은 자료 통합을 제외하고는 통합형 문항이 전무하고 모두 단일형 문항으로 출제되었음을 재고의 여지가 있다.

## 2. 복합형 문항 분석

### 1) 내용적 분석

2005~2013학년도까지 수능에서 문법 영역 복합형 문항은 총 62개 문항이 출제되었다. 복합형 문항은 대부분 읽기 영역 속에 흡수되어 출제되었고, 2012학년도를 제외하고 매년 1개 문항이 쓰기 영역의 고쳐 쓰기 속에 함께 출제되었다. 이를 간략히 도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10) 문법 영역 복합형 문항의 출제 내용 범위

	말소리	단어	어휘	문장	의미	답화	규범	한자	비고
2005 (8개)		60(조사)	32(의미) 43(의미) 55(의미)	12(구조)	51(문맥) 59(문맥)			36(고사)	쓰기-12 읽기-32,43, 51,55,59,60
2006 (9개)		12(사용) 38(구조)	23(의미) 46(의미) 60(사전)	12(구조) 33(높임)	30(문맥) 41(문맥) 47(문맥)	12(문단)	12(맞)		쓰기-12 읽기-23,30,33, 38,41,46,47,60
2007 (8개)			12(속어) 19(유의) 34(표상) 36(유의) 50(유의)	12(구조)	22(문맥) 27(관계) 60(문맥)	12(구조)			쓰기-12 읽기-19,22,27, 34,36,50,60
2008 (5개)	32(음절)		22(유의) 43(감각)	10(구조)	10(문맥) 26(문맥)	10(통일)		30(고사)	쓰기-10 읽기-22, 32,26,43
2009 (7개)			15(사전) 19(접어) 27(유의)	9(구조)	9(관계) 22(문맥) 46(문맥)			50(고사)	쓰기-9 읽기-15,19, 22,27,46,50
2010 (6개)	31(동화)	9(부사)	23(의미) 45(유의)	9(구조)	50(문맥)	9(문단)		19(고사)	쓰기-9 읽기-19,23, 31,45,50

2011 (7개)		9(사용) 36(조사) 38(조사) 39(합성)	20(의미) 24(유의)	9(구조)		9(통일)		50(고사)	쓰기-9 읽기-2, 24, 36, 38, 39, 50
2012 (5개)	42(IPA)		24(유의) 50(유의)		19(관계)			28(고사)	읽기-19, 24, 28, 42, 50
2013 (6개)		28(조어) 38(형태)	24(유의) 42(의미)	38(구조)		9(통일)	9(맞)	16(고사)	쓰기-9 읽기-16, 24, 28, 38, 42
계 (76)	3	10	24	9	15	6	2	7	

(10)의 도표도 앞의 (5)의 도표와 표시 방식은 동일하다. 다만 ‘비고’를 두어 타 영역과의 통합성을 표시하였다. 2012학년도를 제외하고는 매년 쓰기 영역(고쳐 쓰기)과 통합된 1개 문항이 출제되었고, 나머지 복합형 문항은 모두 읽기 영역 속에서 출제되었다. (10)에서 ‘계’의 수치가 복합형 문항 총 개수(62개)와 다른 것은 ‘고쳐 쓰기’ 문항이 문법의 여러 부분에 걸쳐 출제되어 이들이 복수로 들어가 있기 때문이다.

복합형 문항 내용은 총 76개 중 말소리 부분이 3개(3.94%), 단어 부분이 10개(13.15%), 어휘 부분이 24개(31.57%), 문장 부분이 9개(11.84%), 의미 부분이 15개(19.73%), 담화 부분이 6개(7.89%), 어문 규범 부분이 2개(2.63%), 한자 부분이 7개(9.21%)로 구성되어 있다. 출제 비율 순서는 ‘어휘 > 의미 > 단어 > 문장 > 한자 > 담화 > 말소리 > 어문 규범’ 순이다.

복합형 문항에서도 어휘 부분이 가장 많이 출제되었다. 어휘는 개별 어휘의 의미를 묻는 문항이 대부분인데, 사전적 뜻풀이 곧 어휘 의미 찾기, 개별 어휘와 바꾸어 쓸 수 있는 유의어 찾기, 국어사전 제시형, 첨어나 의태어 같은 감각어 등 다양한 어휘 의미를 묻는 문항들이 출제되었다.

단독형 문항에서 의미 부분이 전무했던 것과는 달리 복합형 문항에서는 의미 부분이 어휘 부분 다음으로 많이 출제되었다. 그러나 의미 부분의 15개 문항을 보면 어휘의 문맥적 의미를 묻는 것이 대부분이다. 곧 이는 어휘의

미와 깊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단어 부분의 출제 내용도 다양한 범위에서 출제되었다. 조사, 어미, 접사 등과 같은 형식 형태소의 쓰임이나 기능, 단어의 구조, 합성어, 단어 형성 방법 등 형태론의 내용을 고루 출제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문장 부분의 출제 빈도는 단독형보다는 높음을 볼 수 있다. 이것은 쓰기 영역의 고쳐 쓰기 부분에서 문장의 수식, 호응 관계, 문법 요소, 생략 등을 답지로 많이 활용하였기 때문이다.

한자 부분은 읽기 자료로 제시된 지문에서 지시하는 내용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는 고사성어를 묻는 문항이 9개나 출제되었다. 본래 한자 부분은 문법 영역의 내용이 아니므로 한자 관련 문항이 단독형에는 한 문제도 출제되지 않았다. 결국 한자 문항이 복합형 문항에만 출제될 수 있는 문항임을 알 수 있다.

담화 부분도 복합형 문항에 6개가 출제되었는데, 이 역시 문장 부분과 마찬가지로 쓰기 영역에서 문단의 연결 관계, 글의 통일성 등과 관련된 문항이 출제되었기 때문이다.

말소리 부분은 단독형 문항에서는 한 문항도 출제되지 않았는데, 복합형 문항에서 3문항이 출제되었다. 읽기 자료로 제시된 지문을 읽고 <보기>로 제시되는 음운론적 지식과 관련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문항들로 추론적 사고 능력을 묻는 문항이다. 다만 2012학년도의 42번 문항과 같이 국제 음성 기호(IPA)에 대한 내용을 보기로 제시하고 이와 관련된 탐구 내용을 고르는 것은 출제 내용 범위상 문제의 소지가 있다. 수능의 언어 영역 출제 범위가 범교과적이라고 하지만, 국제 음성 기호는 학교 문법 내용 밖의 지식이며, 대학에서 전공 지식으로 학습하는 전문적인 지식이다. 이러한 전문 지식 내용까지 범교과적 지식이라 해야 할지 의문이다.

이상에서 볼 때 복합형 문항의 출제 범위가 어휘, 어휘 의미, 단어 부분에 집중되어 있는 면을 고려한다면 복합형 문항도 단독형 문항과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간주할 수 있다. 곧 76개 문항 중 49개(64.47%) 문항이

어휘, 의미, 단어 세 부분에 해당되고 있음을 볼 때, 복합형 문항의 출제 범위 현상도 단독형 문항 출제 범위 현상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물론 단독형에서는 한 문항도 출제되지 않았던 말소리, 담화, 한자 부분도 다양하게 출제되고 있는 것을 고려한다면, 복합형 문항은 단독형 문항과 같이 집중적인 출제 범위의 편향성을 가지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 2) 형식적 분석

수능 복합형 문법 문항의 형식적 분류를 위해 단독형 문항의 형식적 분류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4)의 ‘문항 제작 원리에 따른 문항 유형 분류’에 따라 분석을 한다. 2005학년도부터 2013학년도까지 출제된 문법 영역 복합형 문항 62개를 분석하여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 (11) 문법 영역 복합형 문항의 형식적 분석

분류 기준	문항 유형	문항 번호									계
		'05	'06	'07	'08	'09	'10	'11	'12	'13	
① 소재의 성격	생활 중심형	12	12	12	10	9	9	9		9	8
	교과 중심형	32,36, 43,51, 55,59, 60	23,30, 33,38, 4146, 47,60	19,22, 27,34, 36,50, 60	22,26, 30,32, 43	15,19, 22,27, 46,50	19,23, 31,45, 50	20,24, 36,38, 39,50	19,24, 28,42, 50	16,24, 28,38, 42	54
② 자료 활용 여부	자료 추가형	12,32, 36,43, 51,55, 59,60	12,23, 30,33, 38,41, 46,47, 60	12,19, 22,27, 34,36, 50,60	10,22, 26,30, 32,43	9,15, 19,22, 27,46, 50	9,19, 23,31, 45,50	9,20, 24,36, 38,39, 50	19,24, 28,42, 50	9,16, 24,28, 38,42	62
	문두 독립형										0
③ 조건 제시 여부	조건 부과형	12,59	12,23, 38,60	12	10,22, 30,32, 43	9,15, 19	9,31	9,36, 38,39, 50	19,28, 42	9,28, 38,42	29
	조건 부재형	32,36, 43,51, 55,60	30,33, 41,46, 47	19,22, 27,34, 36,50, 60	26	22,27, 46,50	19,23, 45,50	20,24	24,50	16,24	33

④ 활동의 통합성 여부	통합형	교과 통합형	36		36	30	50	19	50	28	16	8
		영역 통합형	12,43, 59,60	12,23, 38,41, 46,47, 60	12,19, 22,34, 50,60	10,26, 43	9,15, 19,22, 27,46	9,23, 45,50	9,20, 24,36, 38,39	19,24, 42,50	9,24, 28,38, 42	45
		제자 통합형	55	30,33								3
		매체 통합형										0
	단일형	32,51		27	22,32		31					6
⑤ 사고의 성격	탐구형	12	12	12	10	9	9,31	9,38, 39	42	9,38	13	
	이해형	32,36, 43,51, 55,59, 60	23,30, 33,38, 41,46, 47,60	19,22, 27,34, 50,60	22,26, 30,32, 43	15,19, 22,27, 46,50	19,23, 45,50	20,24, 36,50	19,24, 28,50	16,24, 28,42	49	

(11)은 단독형 문항 분석 도표 (6)과 약간의 차이를 두었다. 이는 (6)과 같이 하나의 도표 안에 62개 각각의 문항에 대한 분석 결과를 모두 나타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도표에는 해당 연도의 문항 번호를 표시하였다.

(11)을 전체적으로 보면 단독형 문항과 달리 복합형 문항은 대부분의 문항 유형 속에 두루 출제되었음을 알 수 있다.

‘①소재의 성격’에서는 ‘생활 중심형’ 문항이 2012학년도를 제외하고는 매년 한 문항씩 출제되었다.<sup>8</sup> 이는 쓰기 영역의 고쳐 쓰기 문항에 함께 출제된 것으로, 지문이나 ‘보기’ 등이 일상생활의 구체적인 장면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쓰기 영역과의 복합형 1개 문항을 제외하면 나머지 모두 교과 중심형 문항 유형이다. 단독형 문항과 마찬가지로 일상생활의 국어를 다루는 ‘생활 중심형’ 문항 유형에 보다 관심을 갖고 문항 개발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8 2012학년도 고쳐 쓰기 문항에서는 문법 영역의 내용을 다루는 문항이 없다.

‘②자료 활용 여부’에 따른 문항 유형에서는 62개 모든 복합형 문항에 자료가 추가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이것은 문항 자체가 복합형인 까닭에, 주로 읽기 영역의 문항과 복합되기 때문에 지문이나 ‘보기’ 등의 자료가 기본적으로 제시된 것이다.

‘③조건 제시 여부’에 따른 문항 유형에서는 ‘조건 부기형’(29개)과 ‘조건 부재형’(33개)이 근소한 차이를 나타내지만 조건 부재형이 수적으로 좀 더 우세임을 알 수 있다. 이는 문법 영역의 복합형 문항은 아무런 조건을 제시하지 않는 일반적인 문항 유형이 아직까지 우세하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향후 변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 (12) ㄱ. 조건 제시형(2011 수능 39번)

#### ㄴ. 조건 부재형(2011 수능 20번)

39. 다음과 같이 가상의 순화어를 만들 때, ①~⑥의 합성어 형성 방법을 잘못 적용한 것은?
20. ①~⑩의 사전적 뜻풀이로 바르지 않은 것은?

비꿀 말	재료가 되는 말	방법	가상의 순화어
사포펜슬	○ 가락	ⓐ	가락연필
	○ 빼빼하다	ⓑ	빼빼한연필
	○ 연필		
스캔하다	○ 입다	ⓒ	읽어갈무리하다
	○ 갈무리하다		
스파게티	○ 부드럽다	ⓓ	부드럽국수
	○ 새콤달콤하다	ⓔ	새콤달콤국수
	○ 국수		

- ① ⑦: 재양과 부을 아무로는 말.  
 ② ⑧: 군주가 직접 통치할 수 없을 때에 군주를 대신하여 나라를  
        다스림.  
 ③ ⑨: 거친 땅이나 벼려진 땅을 일구어 논밭이나 쓸모 있는  
        땅으로 만드는.  
 ④ ⑩: 어떤 대상이 다른 대상과의 관계 속에서 가지는 위치나  
        상태.  
 ⑤ ⑪: 어떤 경향이나 기색 따위가 뚜렷함.

‘④활동의 통합성 여부’에 따른 ‘통합형’과 ‘단일형’에서는 통합형이 압도적으로 우세를 보이고 있다. 이것은 복합형 문항이라는 문항의 성격상 통합형 문항에 가까울 수밖에 없다는 필연적인 이유가 내재되어 있다. 통합형 중에는 대부분이 영역 통합형이다. 이는 쓰기 영역과 읽기 영역 속에서 문법 문항이 출제되기 때문이다. 또한 교과 통합형이 2006학년도를 제외하고 매

년 1문항씩 출제되었는데, 이것은 한자 고사성어 관련 문항이다.<sup>9</sup>

그리고 ‘제재 통합형’은 읽기 문항에 제시된 자료들이 시와 소설, 문학과 비문학 자료들과 함께 복합적으로 제시된 문항으로 2005학년도와 2006학년도를 합쳐 3개 문항이 출제되었다. 이후로는 이러한 ‘제재 통합형’ 문항이 출제되지 않고 있음을 볼 때, 문법 복합형 문항에서 복합 제재를 활용하는 문항이 지양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매체 통합형’ 문항은 단 1개의 문항도 출제되지 않았다. 즉 복합형 문법 문항에서는 그럼, 사진, 만화 등의 시각 매체나 영화, 텔레비전 등의 영상 매체 등이 활용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문항 속에서 활동의 ‘단일형’ 문항도 전체 6개가 출제되었다. 이는 복합형 문항이라는 본래의 성격상 특이한 현상이라 할 수 있다.

### (13) 활동의 단일형 문항(2008학년도 수능 22번)

22. ①와 관련하여 ‘돕다’가 쓰인 다양한 예문을 찾아보았다. 각 예문에 쓰인 ‘돕다’의 유의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예문	유의어
①	수재 의연금을 내서 수재민을 <u>도왔다</u> .	구명하다
②	임금님을 <u>도와</u> 좋은 나라를 만들었다.	보필하다
③	친구가 임무를 마칠 수 있도록 <u>도왔다</u> .	조력하다
④	이 약은 원기를 <u>돕는</u> 효과가 매우 크다.	증진하다
⑤	두 회사는 그 사업을 위해 회사끼리 <u>돕기</u> 로 했다.	제휴하다

(13)의 22번 문항의 문두를 보면, 제시된 지문 속의 밑줄 친 ①단어와 관련시켜 읽기 자료와의 통합성을 시도하는 통합형 문항처럼 보인다. 그러

9 한자어와 관련되는 문항을 한문 교과와의 교과적 통합으로 분석하였다.

나 실제로 이 문항은 제시된 지문 자료 없이도 문제 해결이 가능한 문항이다. 다시 말해 ‘돕다’가 답지 ‘예문’의 각 문장 속에 쓰였을 때 해당 유의어를 찾는 문항이므로 이 문항은 문법 단독형 문항과 차이가 없는 ‘단일형’ 문항이다.

‘⑤사고의 성격’에 따른 ‘탐구형’과 ‘이해형’ 문항 유형에서 복합형 문항은 이해형(49개)이 탐구형(13)에 비해 월등히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문법 교육에서 탐구 학습을 지향하는데, 수능 문항에서도 읽기 자료에 대한 단순 이해 차원을 넘어 탐구 차원에서의 탐구형 문항이 다수 출제되고 있음을 문법 교육 차원에서 의미 있는 일이라 하겠다.

#### (14) 탐구형 문항(2010학년도 수능 31번)

31. 위 글을 참고할 때, <보기>에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비음성]의 A가 [+비음성]의 C 앞에서 [+비음성]의 B가 되는 자음 동화 규칙과 그 실례는 다음과 같다.	
<b>【규칙】</b>	A → B / ___ C
<b>【실례】</b>	ㄱ → ㅇ / ___ ㅁ 국물 [궁물]
	ㄷ → ㄴ / ___ ㅁ 맘더느리 [만더느리]
	ㅂ → ㅁ / ___ ㄴ 음내 [음내]

- ① ①에 해당하는 ‘ㄱ, ㄷ, ㅂ’은 공통적으로 [-비음성]을 갖는군.  
② ①에 해당하는 음들은 비음성을 기준으로 하나의 부류를 형성하는군.  
③ ②에 해당하는 ‘ㄴ, ㅁ’은 공통적으로 [+비음성]을 갖는군.  
④ ‘음내’에서 ②에 해당하는 ‘ㅂ’과 ‘ㅁ’은 공통적으로 [+양순성]을 갖는군.  
⑤ ‘국물’에서 ①에 해당하는 음들은 비음성을 기준으로 하나의 부류를 형성하지 못하는군.

## IV. 결론 및 제언

이제까지 2005학년도부터 2013학년도 수능 홀수형 문법 영역의 80개 문항을 대상으로 단독형 문항과 복합형 문항으로 분류하고, 다시 이들을 내용적 측면과 형식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문항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정리하면서 분석 결과를 통한 수능 문법 영역의 출제 경향 진단에 대해 제언하면서 본고를 마무리한다.

### 1. 분석 결과

우선 내용적 측면의 분석 결과를 보면, 출제 범위가 어휘(어휘 의미 포함)와 단어 부분에 집중되는 편향성을 보이고 있다. 두 부분의 문항 수가 전체의 65.95%에 이르고 있음을 볼 때 출제 범위의 심각한 불균형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이 가운데에서 어휘 부분 문항이 74.19%에 달하여 그 편중 현상은 더욱 심각하다. 이러한 현상은 교실 현장의 문법 교육에서 교수·학습 내용의 심각한 불균형을 초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형식적 측면의 분석 결과를 보면, 단독형 문항에서는 대부분의 문항이 자료 추가형이나 조건 부과형으로 출제되고, 이해형 문항과 탐구형 문항이 근사한 차이로 출제되고 있음을 볼 때, 단순한 사실적 이해 능력을 평가하는 문항에서 벗어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소재가 생활 중심형이 아닌 교과 중심형이 대부분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문법 교육을 지향하는 현장의 문법 교육과 상치되는 것이다. 따라서 일상 언어 중심의 문법 문항 개발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복합형 문항에서는 문항의 성격상 통합형 문항이 많고, 자료 추가형 문항으로 일관되고 있음을 예상할 수 있었던 결과였다. 그러나 소재의 성격이 쓰기 영역과의 복합형 문항을 제외한다면 교과 중심형 문항에 치우쳐 있고,

통합형 문항에서도 영역 통합형 문항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탐구형 문항보다는 이해형 문항이 우세함은 문법 영역 문항 개발에 또 다른 과제가 될 것이다.

## 2. 출제 경향 진단

### 1) 출제 내용 범위의 다양성 필요

위에서 문항 분석 결과를 통해 문법 영역의 출제 내용 범위가 어휘와 단어 부분에 집중되어 있음을 문제로 지적하였다. 이는 그동안 수능에서 문법 문항 수가 적었음을 탓할 수도 있겠지만, 해를 거듭하면서 어휘나 단어를 제외한 다른 부분의 내용을 교차적으로 출제하지 않은 문제도 제기할 수 있다. 향후 2014학년도 수능부터는 ‘어휘·어법’ 영역의 문항 수가 늘어난다. 따라서 늘어난 문항 수 덕으로 문법 내용의 다양한 분야들이 출제 범위로 포함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 2) 출제 문항의 외적 다양성 필요

우선 문법 문항의 소재를 일상 언어를 대상으로 하는 문항을 출제해야 할 필요가 있다. 수능의 언어 영역이 기본적으로 범교과를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일상생활의 언어 자료를 소재로 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 또한 단독형 문법 문항에서는 통합형 문항이 거의 전무한데, 이는 통합적 국어 교육의 관점에 역행하는 바이다. 또한 다양한 통합의 방법을 활용하여 문항을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영역, 제재, 매체’ 등의 통합성만이 아닌 출제위원의 통합 관점에 따른 다양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문항 개발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 3) 출제 위원 전공 영역의 다변화 필요

문법 문항의 출제 범위가 어휘와 단어 부분에 편중되어 있다는 문제의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출제 위원의 전공 영역에 변화를 주는 것이다. 매년

동일 영역의 전공자가 출제위원으로 위촉되는 것이 출제 범위 편중 현상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를 방지하고, 출제위원 전공 영역의 다변화를 통해 매년 출제 범위를 달리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를 위해 주무 기관에서 매년 출제 범위를 교차하는 계획을 세우고, 매년 교차되는 출제 범위에 따라 관련 전공자를 출제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법으로도 출제 범위의 편향성을 해결할 수 있다.

#### 4) 교실 현장에서 문법 교육의 다변화 필요

수능 문법 영역의 문항이 어휘와 단어 부분에 집중되어 출제된다는 사실을 통해 학교 현장에서의 문법 교육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곧 학교 현장에서의 문법 교육이 어휘 교육 중심의 문법 교육으로 변할 수 있다 는 것이다. 따라서 수능 문법 문항의 출제 범위를 다변화시켜 교실 현장에서의 문법 교육이 특정 분야에 편중된 암기 교육이 아닌 문법 영역의 고른 지식을 탐구하고 학습할 수 있는 문법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2005학년도~201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제지 언어 영역(홀수형).
- 구본관·조용기(2013), 「문법 영역 출제의 개선 방향—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국어 영역을 중심으로」, 『문법교육』 18, pp. 1-44, 한국문법교육학회.
- 국신애(2009), 「대학수학능력시험 언어영역 국어지식 문항 분석」, 성신여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 김신영(2009), 「대학수학능력시험의 개선 방안 탐색」, 『교육평가연구』 22-1, pp. 1-27, 한국교육평가학회.
- 김창원(2003), 「국어교육 평가의 구조와 원리」, 『어문학교육』 27, pp. 5-37, 한국어문교육학회.
- 남명호 외(2005), 『대학수학능력시험 10년사 I·II』,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맹인숙(2008), 「대학수학능력시험 국어 과목의 문법 문항 출제 경향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석사논문.
- 박도순(1991), 「대학수학능력시험과 고등학교 교육목표」, 『대학수학능력시험과 고등학교 교육의 재조명』, 중앙교육평가원.
- 박상규(2002) 「대학수학능력시험 언어영역의 문항 분석 연구」,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 신명선(2007), 「문법교육에서 추구하는 교육적 인간성에 관한 연구」, 『국어교육학연구』 28, pp. 423-458, 국어교육학회.
- 심지연(2003), 「대학수학능력시험 언어영역 분석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논문.
- \_\_\_\_\_ (2005), 「대학 입시에서의 의미 교육의 평가 현황」, 『한국어의미학』 16, pp. 125-142, 한국어의미학회.
- 양길석(2010), 「대학수학능력시험의 변천 과정과 쟁점 분석」, 『교육평가연구』 23-4, pp. 765-791, 한국교육평가학회.
- 이재근(2005), 「대학수학능력시험 국어지식영역 분석 연구」,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 이종승 외(2004), 대학수학능력시험 개선 방안 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한국교육개발원.
- 조용기(2013), 「대입 국가고사 국어시험 체제의 변천」, 『한국어문교육』 13, pp. 181-202, 고려대 한국어문교육연구소.
- 한국교육과정평가원(2004가), 200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어떻게 준비할까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_\_\_\_\_ (2004나),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 매뉴얼-언어 영역,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_\_\_\_\_ (2012), 201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대비 학습 방법 안내,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대학수학능력시험의 문법 영역 문항 분석을 통한 출제 경향 진단

—2005학년도~2013학년도를 대상으로—

신호철

본고는 2005학년도부터 2013학년도 수능에 출제된 문법 문항에 대한 분석 작업을 바탕으로 문법 문항의 출제 경향을 점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그래서 2005학년도부터 2013학년도 수능 흘수형 문법 영역의 80개 문항을 대상으로 단독형 문항과 복합형 문항으로 분류하고, 다시 이들을 내용적 측면과 형식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문항 분석을 실시하였다.

우선 내용적 측면의 분석 결과를 보면, 출제 범위가 어휘(어휘 의미 포함)와 단어 부분에 집중되는 편향성을 보이고 있다. 두 부분의 문항 수가 전체의 65.95%에 이르고 있음을 볼 때 출제 범위의 심각한 불균형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현상은 교실 현장의 문법 교육에서 교수·학습 내용의 심각한 불균형을 초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형식적 측면의 분석 결과를 보면, 단독형 문항에서는 대부분의 문항이 자료 추가형이나 조건 부과형으로 출제되고, 이해형 문항과 탐구형 문항이 근사한 차이로 출제되고 있음을 볼 때, 단순한 사실적 이해 능력을 평가하는 문항에서 벗어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소재가 생활 중심형이 아닌 교과 중심형이 대부분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문법 교육을 지향하는 현장의 문법 교육과 상치되는 것이다.

핵심어 대학수학능력시험, 문법 문항, 출제 경향, 단독형 문항, 복합형 문항

## ABSTRACT

# The diagnosis examination question tendency through analysis on the questions of grammar in the College Scholastic Ability Test

—Centering on the 2005 to 2013—

Shin, Ho-cheol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grammar items of Korean Language of College Scholastic Ability Test and the tendency of grammar questions. In this paper I was analyzed on the grammar question of the area to target 80 in the 2005 to 2013 College Scholastic Ability Tests. The Grammar questions were classified as director type questions and complex type questions. These were divided into the aspect of content and formal. First, look at the results of the analysis of the content aspect, the range of questions is focused on vocabulary and word parts. The ratio of the number of two-part question has reached 65.95 percent. And when the results of the analysis of the formal aspect, questions could be found almost integrated. Focus on the future development of an integrated grammar questions must be taken. Through the above results, the following questions will tend to diagnose. First, for diversity in the range of questions is needed. Second, the formal diversity questions is needed. Third, the committee questions the diversification of major area is required. Finally, grammar education's diversification is needed in the field of the department of education

**KEYWORDS** College Scholastic Ability Test, Grammar Questions, examination question tendency, Director type Questions, Complex type Questions